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2월 3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최효욱, 심준섭					
건명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					
소개년월일	2012년 2월 3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최효욱, 심준섭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주최하는 제 14회 임시 모의국회 교육상임위원입니다. 2012년 2월 임시회의 중 본 상임위에서는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청원합니다.</p> <p>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EBS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하여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방안 중 각 영역별 만점자를 1%로 조정하겠다는 항목은 학생들의 점수대를 국가에서 조절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시 현재 만점자 0.8%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2012 수능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 사항들을 개선한 수정안을 법원에 청원합니다.</p> <p>교육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능출제자는 수험생 점수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폐지한다. 2. EBS와 수능 연계는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원리적용 방식으로 시정한다. 3. 교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화된 집필과정을 도입한다. 4. EBS가 교재로 얻은 이익을 교재에 재투자 하여 교재의 질을 개선한다. <p>신구문대조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th> <th style="width: 50%;">개정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0년 수능보다 더 쉽게 2012년 수능을 출제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유지되도록 수준 조절(수준 하향) 2. 수능과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 강화 *EBS 문제를 비틀어서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2011년)는 EBS 연계율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할 것이다. *(생략) 지표, 지문, 그림, 표 등을 활용 할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능출제자는 수험생 점수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폐지한다. 2. EBS와 수능 연계는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원리적용 방식으로 시정한다. 3. 교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화된 집필과정을 도입한다. 4. EBS가 교재로 얻은 이익을 교재에 재투자 하여 교재의 질을 개선한다. </td> </tr> </tbody> </table>			현행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	개정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0년 수능보다 더 쉽게 2012년 수능을 출제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유지되도록 수준 조절(수준 하향) 2. 수능과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 강화 *EBS 문제를 비틀어서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2011년)는 EBS 연계율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할 것이다. *(생략) 지표, 지문, 그림, 표 등을 활용 할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능출제자는 수험생 점수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폐지한다. 2. EBS와 수능 연계는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원리적용 방식으로 시정한다. 3. 교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화된 집필과정을 도입한다. 4. EBS가 교재로 얻은 이익을 교재에 재투자 하여 교재의 질을 개선한다.
현행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	개정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0년 수능보다 더 쉽게 2012년 수능을 출제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유지되도록 수준 조절(수준 하향) 2. 수능과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 강화 *EBS 문제를 비틀어서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2011년)는 EBS 연계율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할 것이다. *(생략) 지표, 지문, 그림, 표 등을 활용 할 것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능출제자는 수험생 점수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폐지한다. 2. EBS와 수능 연계는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원리적용 방식으로 시정한다. 3. 교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화된 집필과정을 도입한다. 4. EBS가 교재로 얻은 이익을 교재에 재투자 하여 교재의 질을 개선한다. 					

소 개 의 위 원 인

청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2월 16일에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새로운 입시전형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수능점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쉬운 수능으로 수험생의 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수능보다 더 쉽게 2012년 수능을 출제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유지되도록 수준 조절(수준 하향)

[수능과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 강화]

*EBS 문제를 비틀어서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2011년)는 EBS 연계율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할 것이다.

*또한 지표, 지문, 그림, 표 등을 활용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지난해(2009년) EBS 홈페이지 '교재 올 신고게시판'에는 2300여건의 오류가 신고 되었다. 결국 EBS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100쪽 분량의 오류 정오표를 내놓는가 하면 수능 이틀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오류 정오표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2010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 교재에서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수정본을 발간했다. 또 수능 연계 교재로 지정된 언어영역 교재 모두에서 7~23건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8월 현재 17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신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또한 5000여건에 달한다.

----->신문기사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개정해야할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청원하고자한다.

2. 주요골자

현행 '수능과 EBS 연계 강화 방안'	개정문
<p>1. 2010년 수능보다 더 쉽게 2012년 수능을 출제한다</p> <p>*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유지되도록 수준 조절(수준 하향)</p> <p>2. 수능과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 강화</p> <p>*EBS 문제를 비틀어서 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체감하지 못했다.</p> <p>*따라서 올해부터(2011년)는 EBS 연계율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할 것이다.</p> <p>*(생략) 지표, 지문, 그림, 표 등을 활용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1. 수능출제자는 수험생 점수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폐지한다.</p> <p>2. EBS와 수능 연계는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원리 적용 방식으로 시정한다.</p> <p>3. 교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화된 집필 과정을 도입한다.</p> <p>4. EBS가 교재로 얻은 이익을 교재에 재투자 하여 교재의 질을 개선한다.</p>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